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 상 철[†]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행동 개입 과정과 양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통해 가출의 의미와 원인, 최근 조사결과에 근거한 실태와 특징 등을 분석하고, 청소년 시기에 가출을 야기하는 위험요인(risk factors)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들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가출로 인한 문제행동을 완충 또는 중재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먼저, 청소년 가출에 대해 이를 더 이상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부적절한 가정환경과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행동, 부정적인 또래압력과 입시 스트레스 등이 가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면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 또는 중재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적극적 대처전략,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자기 존중감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가출의 예방은 물론이고 가출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향상 시킴으로써 비행 및 재 가출을 차단할 수 있는 처치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청소년 가출, 위험요인,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대처전략 등

[†] 교신저자 : 한상철,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경북 경산시 유곡동 290
E-mail : hsch@dhu.ac.kr

서론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 개인의 건강문제와 교육문제,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과 임신 및 미혼모 문제, 빈곤과 노숙생활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청소년 가출은 단순히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집 밖으로 내쫓는 가정과 학교의 ‘방출요인’과 이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사회 유해환경의 ‘유인요인’ 그리고 가출행위를 실제로 유발시키는 개인의 ‘촉발요인’(따분함, 충동, 친구들의 유혹)의 상호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작용에 기인한다.

청소년가출은 성인가출과 달리 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행동으로 인식되는 지위비행의 일종이다(고성혜, 1996). 청소년 가출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지만, 최근의 성향은 초등 4~6학년 가출 비율이 전체의 26.8%를 차지할 만큼 조기화되고 있고, 6회 이상의 가출이 37.6%로 가장 높을 만큼 상승화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가출자가 약 24% 정도에 해당될 만큼 장기화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김경준 등(2006)의 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 가출자가 56.8%에 이른다고 보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숙식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이지만(윤현영 등, 2005; Wingert et al., 2005), 이 밖에도 상승적인 흡연과 음주, 영양 결핍, 임신과 낙태, 범죄 가담 및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김지혜, 2005; 윤현영 등, 2005). 김지혜(2005)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가운데 조사 대상자의 91.6%가 비행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식료품과 의복, 금전 등의 절도나 강도와 같은 재산비행이 가장 많고, 마약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약물비행과 성매매 등을 포함하는 성 비행, 그리고 폭력비행 등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가출 청소년들에게 가장 공통적인 경험은 물질사용과 불법적인 약물사용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Tyler & Johnson, 2006; Fors & Rojek, 1991),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폭력이나 마약, 절도 등의 비행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고, 여자들은 매춘, 절도, 마약 등의 비행과 결합되어 있다(Edelman & Mihaly, 1989; Farrow et al., 1992). 심지어 Feitel 등(1992)과 Greeno 및 Ringwalt(1996)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이 10~37% 범위에 있음을 밝히면서, 이는 일반 청소년의 3~19%와 비교할 때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가출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 가출 이후 비행을 비롯한 문제행동 개입 비율 또한 계속 증가되고 상황에서 청소년 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Yoder, Hoyt, & Whitbeck, 1998; Greeno & Ringwalt, 1996). 최근 가정해체가 확대되고 자녀에 대한 방임과 학대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쾌락추구나 충동적으로 가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가출을 선택하는 생존형 가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청소년 가출자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가출에 대해 더 이상 예방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가출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높여줌으로써 가출 이후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흡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Voydanoff & Donnelly, 1999; 한상철·이수연, 2003).

지금까지 청소년 가출에 대한 많은 선행들은 가출의 원인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가출 예방을 위해 이를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Unger et al., 1998). 이들 연구자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은 아동기 동안의 잦은 거주지 변화, 빈곤, 가족 갈등,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부모 부재 등 가정 관련 요인이 가장 높은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Simon et al., 1996). 이와 더불어 가출 청소년은 가출 이전에 이미 비행, 신체적·성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며(Lind & Shelden, 1992),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가출 이전에 무단결석과 음주, 흡연 등의 지위비행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조학래, 2004).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가족요인이 전체 62.6%를 차지하고, 다음이 심리적 요인(18.1%), 학교 요인(6.9%), 친구 및 이성 친구 요인(4.1%)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 가출의 원인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들 위험요인이 가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가출이 비행을 포함한 문제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가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험요인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하지만, 이와 같은 스트레스 인자가 곧바로 청소년들에게 부적 스트레스(distress)를 유발하지는 않는다(Sarason et al., 1994). 오히려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개인의 지각 및 해석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 때 지각은 개인의 신념체계에 의해 좌우되며, 더 크게는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체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즉, 가

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스트레스 인자(환경적 자극)에 대해 개인의 적극적 대처능력과 높은 자기 존중감 등이 건강한 신념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합리적인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도록 한다면 이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지각체계는 스트레스 인자를 부정적인 자원으로서가 아닌 긍정적인 자원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개인의 행동에 부적 스트레스가 아닌 정적 스트레스(eustress)를 유발시킬 것이다. 이 때 개인의 신념체계와 사회적 규준에 작용하면서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 또는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이라고 한다(Dumont & Provost, 1999; Voydanoff & Donnelly, 1999; Unger et al., 1998).

부모나 그 밖의 가족, 교사, 동료 등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물론이고 그들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향상시켜 준다(Voydanoff & Donnelly, 1999).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 규준 및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개선과 자기중심적 사고의 탈피를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igel et al., 1998). 이는 곧 열약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개인으로 하여금 적응력을 높여주고, 기능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며,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높여 줄 것이다. 이를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청소년 교육의 주된 목표이기도 하다.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전략, 부모의 감시와 통제, 자기 존중감 등은 가출 청소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이며, 이는 곧 그들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Thoits, 1995).

그러므로 청소년 가출에 작용하는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처치해 줌으로써 가출 이후 다양한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물론이고 이들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을 재분석하고, 이들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 또는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가출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높여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가출이 보편화·상습화 되고 있음으로써 예방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가출 이후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소외와 고통, 상실감 등을 경감시켜 주고,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청소년가출의 의미와 위험행동

청소년 가출의 의미와 특징

청소년 가출의 의미

청소년 가출(runaway)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도 쉽게 수용될 수 없는 청소년 개인의 부적응 문제이자 사회 문제이다. 청소년 가출은 성인 가출과 달리 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행동으로 인식되는 지위비행의 일종이다(고성혜, 1996). 그러나 지위비행에 속하지만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은 청소년기가 종료된다고 하여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갖가지 신체·정신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가출이 약물남용이나 성 범죄, 절도, 폭력 등의 심각한

한 비행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청소년 가출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이용교, 1993). 그러나 이 정의에서 ‘18세 미만’이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할 뿐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 연령인 ‘9세~24세’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란 표현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가출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24시간’이란 기준 역시 다분히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구체적인 나이와 시간, 집을 벗어난 행위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에 초점을 두어서 “청소년이 가정이나 보호시설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적절한 물질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소외감과 신체적 고통, 지위의 상실 등을 겪고 있는 상태”(한상철, 2000, 2001)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이란 청소년이란 개체가 가정이나 보호시설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외감과 고통, 상실 등이 곧 가출이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가출이 보편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가출을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 또는 ‘나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으로 청소년 가출을 인정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들의 정신적 소외감과 생활의 불편함 및 고통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서의 지위상실 등을 보충하고 치유해 주어야 하는데 의미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출충동의 경우 일부 청소년이 아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고(일반 청소년의 56.7%, 위기 청소년의 80.1%), 가출자 대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정이나 보호시설로부터 쫓겨남으로써 사회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 가출자의 대다수가 귀가를 희망하지 않거나 돌아갈 집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닌 '수용할 수밖에 없는 행위'로 해석해야 됨을 시사한다. 이것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출자들에 대한 사후 조치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소년 가출의 특징

맥락주의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은 가정의 해체나 갈등, 학교나 또래집단의 압력, 사회유해환경으로부터의 유혹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비롯된다.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맥락적 요인을 포함하여 가출 이후 문제행동 개입경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조사한 종합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국 60개소 청소년쉼터에 입소 중인 총 414명의 가출 청소년(남 170명, 여 244명)을 대상으로 가출 시기와 동기, 가출 이후 생활 등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가출 청소년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가출 시기가 점차 조기화되고 있고, 상습적 및 장기적 가출이 보편화되고 있다. 쉼터 이용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가출한 나이는 남자가 평균 12.8세이고, 여자

가 평균 13.4세였다. 첫 가출 나이는 13세가 5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4-16세(39.1%), 17-19세(9.9%) 순이었다. 한편 가출당시 재학 학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초등학교 4-6학년이 2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학교 2학년(16.8%), 중학교 1학년(15.6%), 중학교 3학년(13.5%)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가출한 경우도 9.4%나 되어 초기 아동기의 가출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출 총 횟수는 6번 이상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번(23.4%), 2-3번(21.1%), 4-5번(17.9%) 순이었다. 모든 연령별로 가출 횟수가 6번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것은 어떤 연령대이든 일단 가출이 시작되면 가출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또한 재 가출의 증가와 가출의 상습화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출 기간 또한 2-6개월이 3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주-1개월(21.4%), 1-2개월(13.5%), 6개월-1년(12.4%), 1년 이상(11.0%)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약 24%는 가출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다. 이는 가출의 장기화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는 가족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출 동기는 부모와의 불화가 15.5%로 가장 많고, 부모의 폭행(14.2%), 답답해서(10.7%), 부모의 지나친 간섭(7.4%), 부모와의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5.9%), 경제적 어려움(5.6%)의 순이었다. 이를 다시 6가지 요인으로 대별해서 살펴보면, 가출이유 1순위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가족 관련 요인(62.6%)이고, 다음이 심리적 요인(18.1%), 학교 요인(6.9%), 친구 및 이성 친구(4.1%)의 순이었다. 따라서 가출 이유로는 가족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가출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불가피한 생존수단이 되고 있다. 가출이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작용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1/7(14.8%)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가출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 무관심, 성폭력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가출을 선택한 것이다. 즉, 청소년 가출자들은 가출 이전부터 가정이나 환경의 희생자이며, 이들은 사회로부터 또 다른 희생을 반복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Mirkin et al., 1984, 임명용, 1996). 그리고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약 54%)은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이들의 선택이 매우 절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귀가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귀가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문제를 다시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12.3%는 아예 돌아갈 집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5.3%는 귀가하더라도 가족들이 싫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생존권 차원의 가출자와 귀가 불가능 청소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출 이후 청소년들은 기초생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서적인 외로움이나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다. 가출 당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잠 잘 곳이 없을 때가 30.6%로 가장 높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20.8%), 용돈이 없을 때(20.6%), 외롭거나 불안할 때(9.0%)의 순이었다.

또한 1.0%는 성폭행이나 신체폭행 등 범죄피해를 당할 때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가출당시 가장 어려운 것은 의식주 등 기본생활과 관련된 것(약 70%)이며, 약 15%는 외로움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한편, 쉼터 입소 전에 잠을 해결한 곳은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이 43.0%로 가장 높았고, 찜질방(13.1%), 아파트 계단이나 옥상 지하실(8.8%), 피시방 또는 만화방(7.5%), 다른 청소년쉼터 등 수용시설(7.3%) 순이었다. 가출 후 수용시설, 종교기관 등 성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곳에서 기거한 청소년은 약 10%에 불과하고, 12.8%는 옥상이나 공원 등 밖에서 노숙을 하며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청소년의 75%는 여러 가지 범죄에 개입하고,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이나 생존을 위한 성행위에 관여한다는 보고도 있다(Kipke et al., 1997).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이후 기초생활 및 정서적 소외감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섯째, 가출 청소년의 경우 가출 이후 문제행동 개입 비율이 매우 높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지위 상실 등을 겪고 있다. 가출 전후 문제행동 비교에서 유흥업소 출입은 가출 전 15.4%, 가출 후 23.1%로서 훨씬 증가하였으며, 빈도도 가출 후 더 증가하였다. 유흥업소 취업 역시 가출 전(7.4%)보다 가출 후(13.8%)에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이성과의 혼숙경험은 가출 전(21.7%)보다 가출 후(30.9%)에 더 많았으며, 그 횟수도 가출 후에 증가하였다.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 역시 가출 전(20.9%)보다 가출 후(29.9%)에 더 많았다. 돈을 받고 성관계

를 한 경험은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출 전(4.9%)보다 가출 후(9.9%)에 약 2배가량 더 높았다. 최근 1년간 성관계를 가진 상대의 수는 남자가 평균 3.8명이고 여자가 평균 3.3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방 숫자가 1명과 2명이 각각 28.1%로 가장 높지만, 5명 이상이 22.3%이고 3명 이상이 15.7%로써 가출 청소년들의 성 행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병에 걸린 경험은 가출 전(6.1%)보다 가출 후(9.1%)에 더 높았으며, 임신을 하거나 임신을 시킨 경험 또한 가출 전(6.1%)보다 가출 후(8.5%)에 증가하였다.

흡연은 가출 전에 59.7%의 청소년들이 경험을 하였고, 가출 후에는 66.4%의 경험율을 나타내었다. 술을 마신 경험 역시 가출 전(64.8%)보다 가출 후(67.4%)에 다소 더 높았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마신다는 비율은 가출 전에 14.0%인데 반해 가출 후에는 23.2%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환각제나 약물 복용 경험은 가출 전(4.9%)보다 가출 후(9.9%)에 약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자살 생각은 가출 전 59.1%이지만, 가출 후에는 54.9%로 줄어들었다. 가출청소년의 과반 수 이상이 가출 전후에 자살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매우 척박하고 힘들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그들의 직업적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착취하는 성인들의 유해행위 및 사회의 유해환경을 경감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위험행동

어떤 형태의 가출이든 청소년 가출은 다양한 생활사건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된다. 부모와의 불화와 갈등, 부모의 폭력과 지나친 간섭, 학교 성적에 대한 부담감, 친구나 사회의 유혹 등 수많은 요인들이 청소년 가출의 원인 변수인데, 이들 모두는 결국 청소년들에게 주요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다. 그러나 Lazarus와 Folkman(1984)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생활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자극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 부모의 부재나 무관심, 정신적·신체적 학대 등은 스트레스 유발인자이며, 이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지각이 곧 디스트레스(distress)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가출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지각체계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며, 더 포괄적으로 사회 문화적 규준에 영향을 받는다(Giordano et al., 1993; Weigel et al., 1998).

청소년들의 생활사건 지각 및 신념체계와의 관리기술은 가출행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가출 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개입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사회적 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은 가출을 비롯한 위험행동의 선택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가출 후 우울이나 신체 건강의 손상, 알코올이나 약물사용과 같은 문제행동에 더 많이 개입한다(Tyle & Johnson, 2006; Unger et al., 1998).

가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대적 가족이나 무관심한 가족성원으로부터 스스로 탈출하였거나, 그들 부모에 의해 거부되고 밀려나고 버려진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아동기 동

안 거주지의 잦은 변화, 빈곤, 가족 갈등,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부모의 부재 등과 같은 스트레스 인자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부정적인 지각체계와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를 경험하고 있다(Kipke et als., 1995). 즉,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없다', '나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란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심각한 정체성 혼미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는 곧 생활사건에 대한 자신의 지각체계를 부정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퇴하였고, 실직 상태에 있으며, 비행 집단에 관여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약물취급과 매춘에 개입한 비율도 높다(Pollio et al., 2006). 그리고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성병, 원치 않은 임신, 폭력, 기타 문제행동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다(Simon et als., 1996). 따라서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및 신념체계가 가출을 결정하였고, 가출 이후 문제행동의 재생산 및 확산을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관리기술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가출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가출 이후에도 동일한 스트레스 대처기술 및 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행동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의 스트레스 유발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으며, 가출 동안 범죄와 폭력에 개입하면서 일정한 은신처나 음식 또는 돈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Simon et als., 1996). 이러한 청소년들은 우울증이나 건강 악화,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된다(Unger et als., 1998). 이 가운데 특히 우울증은 가출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정신적 장애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

는 추세이다. LA지역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표본 집단의 64%가 DSM-IV의 임상적 우울 증거를 충족시켜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Unger et als., 1997). 이러한 비율은 일반 청소년의 임상적 우울 비율 7%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우울증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높은 상관을 보여 주고 있음으로써(Yoder et als., 1998) 이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 주고 있다.

가출 청소년 가운데 신체적 건강의 악화는 38%를 보여 주고 있음으로써 비가출 청소년 2%와 대조적이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79%, 마리화나 77%, LSD 67%, 코카인 54%, 약물주사 30% 등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55%가 DSM-IV의 알코올 장애 증거를 충족시키고, 60%는 약물장애 증거를 충족시키고 있다(Kipke et als., 1995).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과 약물사용 및 건강악화가 상호 반복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 반응을 증폭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울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더욱 심한 우울증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약물과 성 행동 비율이 높으며, 이는 HIV(AIDS 병원체) 감염 위험을 높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가출자들의 최초 성교 연령은 12.5세인데, 이는 일반 청소년들보다 2년 더 빠르다(Booth, Zhang, & Kwiatkowski, 1999). 가출자들은 또한 일반 청소년들보다 평균적으로 섹스 파트너가 더 많고 자주 바뀌며, 음식과 약, 돈, 잠잘 곳 등을 위해 섹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이러한 결과는 가출자

들의 HIV를 포함한 성병의 감염 비율이 일반 청소년의 15배에 이른다는 보고로 집약된다(Booth et al., 1999).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기술과 사회적 지원을 향상시켜서 그들의 우울 과 약물사용, 건강악화, 성병 감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 가출이 특정한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 청소년들에게까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반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기술 즉, 긍정적인 지각 및 신념체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Pollio 등(2006)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긴급 쉼터의 장·단기 효과를 중단적 연구 설계에 의해 검증하였는데, 이들 연구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에게 6주간의 단기 서비스 지원만으로도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서비스만큼의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원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의식주 지원과 신체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위험행동 개입경로

Elder(1994, 1995)의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이전의 갈등 및 욕구불만을 가출 후의 상황에 전이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가출 이전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 무관심 등을 가출 후 다른 대상에게 전이시키거나, 가출 이전 경제적 궁핍을 절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보상받거나, 부모님의 음주나 약물사용을 모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그들은 가출 이전의 스트레스로 인

한 정신적 고통을 오히려 확대하고 강화해 나간다. 이것은 결국 우울을 비롯한 정신적 혼동을 초래하며, 자포자기적인 생활과 자살 등의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Kandel et als, 1991; Reifman & Windle, 1995; Whitbeck, 1997).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기 이전의 가정환경 맥락(예, 부모의 물질남용, 가족 학대 등)과 거리 생활의 문화적 맥락(예, 잠 잘 곳을 찾아 헤매는 것, 높은 희생을 등)은 유사한 환경적 맥락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약물과 알코올은 그들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생존 수단이 되고 있다(Janus et al., 1987; Tyler & Cauce, 2002; Tyler et al., 2004; Whitbeck & Hoyt, 1999).

Elder(1995)의 생애과정이론은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에 개입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Elder(1994)에 따르면, 인간발달은 생애과정 전체를 통해 일어나는 개인-환경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옛것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행동 성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도움을 준다(Caspi et als., 1989). 생애과정이론은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는데, 그것은 세대 간 관계, 시골 남편과 아내의 경제적 궁핍과 심리적 고통간의 관계, 경제적 궁핍과 청소년 적응과의 관계 등을 설명해 주고 있다(Yoder et al., 1998).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가출 이전에 학대적인 보호자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는데, 가출 후 거리의 문화와 환경은 그들 자신을 더 많은 학대 위험에 빠져 들게 만든다. 이것은 환경의 탓이라기보다 그들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가출 후의 새로운 환경에서 가

정에서의 학대 경험과 유사한 자기 학대나 타인 학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거리의 문화는 반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는데, 그것은 알코올과 약물사용 뿐만 아니라 절도나 매춘 등과 같은 일탈적인 생존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의 누적적인 영향은 가출 이전의 스트레스 사건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되며, 결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자살생각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야기 시킨다(Whitbeck et als., 1997).

고연령자가 저연령자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백인이 비백인보다 각각 자살 행동 개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이들 각 집단의 경우 가출 이전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유사한 것을 가출 후에도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강화 확대하고 우울증을 반복 심화시키는가 하면 결국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Yoder et als., 1998). 이와 유사하게 가족간의 정서적 문제, 가족 성원의 알코올사용, 가족에 의한 신체적 및 성적 학대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많이 선택할 것이며, 친구 가운데 자살 시도나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통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같은 원리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Yoder et als., 1998).

이밖에도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분노 감점을 그들의 학대자를 향해 내재화할 수 있는데, 학대자에 대한 내재화된 분노감정은 가출 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과 보다 낮은 수준의 자기 존중감을 유도한다(Yang & Clum, 1996). 더구나, 폭력 가정에서의 초기 경험은 가출 후 길

거리 생활 동안 청소년의 폭력 행동을 정확하게 예견해 주고 있다(Feitel et als., 1992; Whitbeck et als., 1997). 또한 많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친구가 자살을 시도할 때 생존 대처 기제로서 동반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Neiger & Hopkins, 1988).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가출자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가족이 성적 학대를 하였거나 분노를 내재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가출 후 우울증과 자살의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따라서 성적 외상(trauma)을 경험하였거나 우울증이 심각한 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자살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자살을 시도한 친구를 갖고 있는 가출 청소년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조정하고 변경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상담을 받아야 한다. 셋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기에 앞서 그들의 우울증을 점검하고, 스트레스 관리기술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기술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위험행동(risk behavior)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이며(Arnett, 1998), 손실의 가능성(chance of loss)을 지니고 있는 행동(Irwin, 1993)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난폭운전, 싸움, 흡연, 약물남용, 성행동 등)과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행동(가출, 무단결석, 부정행위, 학교

중퇴)으로 크게 양분되며(Levitt & Selman, 1996), 이것의 부정적인 결과는 심각한 상처나 죽음, 법적 구속, 원하지 않는 임신, 소외감, 우울증 및 정신장애 등으로 나타난다(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한편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은 위험행동의 부정적인 결과이며, 사회적 규범에 위반되는 행동 일체를 포함한다. 예컨대, 싸움(fight)은 위험행동에 속하지만, 폭력(violence)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적 안녕을 위협하는 문제행동에 속한다.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은 부정적인 방향성을 많이 갖지만, 사회적 기능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요소 또한 내포하고 있다(Furstenberg & Hughes, 1995; Steinhausen, Hans-Christoph & Metzke, 2001). Moore와 Gullone(1996)에 따르면,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내포하지만(상실), 지각된 긍정적 결과(이득)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균형이 유지되는 행동”(p.347)이다. 이 때 행동의 긍정적인 면에 비중이 주어지면 그것은 사회 기능적인 행동으로 지각되지만,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 문제행동으로 지각된다.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상 다른 어떤 발달 단계의 개체보다 스틸과 모험을 더 많이 추구하고, 억제나 규제를 더 싫어하고, 지류함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으며,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신체적·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다양하고 신기하며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이와 같은 특성을 Arnett(1996)와 Zuckerman(1979)등은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라고 하고, 신기성과 모험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성향이 청소년 위험행동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험행동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적 산물이지만(Irwin, 1993), 해체가정이나 중도탈락과 같이 열악한 환경조건에 처한 청소년들과 같이 그들의 생태학적 환경이 그들에게 스트레스와 권태로움을 가중시킬 때 위험행동은 그것의 부정적인 기능 즉, 병적인 문제행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Arnett, 1998; McWhirter et al., 2004).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위험요인(risk factors)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음으로써 주변의 열악한 환경 및 조건들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teinhausen et al., 2001; Voydanoff & Donnelly, 1999). 예를 들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고위험군에 대해 위험요인은 20-49%만을 설명해주는 반면, 보호요인은 50-80%를 설명해 준다(Davey, Eaker, & Walters, 2003). 보호요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인생에서 특정 위험요인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극단적인 위험요인(학대, 방임, 지속적인 폭력 등)은 그것이 곧바로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생활사건 스트레스나 일상적인 짜증(hassle) 등의 위험요인은 개인의 지각 및 신념에 의해 중재되어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때 개인의 지각 및 신념체계에 작용하여 위험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 또는 차단시켜 주는 요인을 보호요인이라고 한다(Levitt & Selman, 1996). 예컨대, 보호요인으로 적극적 대처능력(positive coping strategy)을 활용하거나 부모의 감시 및 통제가 높게 작용하는 청소년들은 위험요인인 일상적인 분쟁이

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비율이 의미 있게 낮으며, 사회 적응력과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이와 같이 높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개인들이 심리적 장애나 사회적 문제행동을 나타내 보이기보다 보호요인의 작용으로 그 상황에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현상을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고 한다(Dumont & Provost, 1999; Masten, 2001; Steinhausen et al., 2001; Voydanoff & Donnelly, 1999; Whitaker & Miller, 2000; 신현숙, 2004; 유성경·심혜원, 2002).

최근 위험행동에 대한 일부 연구자들은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 따르면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가치감과 자아강도, 대처전략,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 등의 보호요인을 더 많이 지니고 있으며(Dumont & Provost, 1999; Steinhausen et al., 2001; 신현숙, 2004), 성격 프로파일에서 외향성과 유쾌함, 새로운 경험에의 개방성(Davey et al., 2003) 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들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은 그 자체가 모두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적응유연성이 낮을 때 문제행동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호요인의 부재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위험행동 즉, 문제행동 가능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예측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행동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은 연구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Luthar, Cicchetti 및 Becker(2000)와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이를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족관련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적극적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자기 통제감 등이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가족관련 요인으로는 가족의 긍정적 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Steinhausen et al., 2001). 한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변인과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학교 분위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Davey et al., 2003). 예컨대, 부모와의 대화가 풍부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성 위험상황에서도 성 관련 문제행동에 개입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예, Steinhausen et al., 2001), 자기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동일한 위험요인 상태에서 흡연이나 알코올 등의 위험행동 개입이 현저하게 낮다(예, Masten & Coatsworth, 1998). 보호요인의 강력한 중재효과가 확인될 경우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차단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떤 시대와 환경에서도 그들의 발달적 특성상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작용하는 모든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기보다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처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

위험요인(risk factors)이란 일반적으로 가출이나 싸움, 욕설, 컨닝 등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가족 요인이 가장

많은 비중(70%)을 차지하지만, 이 밖에도 학교 요인과 친구 요인, 사회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종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이웃 등도 가출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족병리 현상들 예컨대, 가정의 해체나 갈등, 부모의 폭력과 학대, 무관심, 경제적 궁핍, 부모의 음주나 약물사용 등은 많은 연구자들(예, Reifman & Windle, 1995; Rice, 1999; Unger et al., 1998; 한상철, 2006)이 가출의 원인으로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문제는 부모의 거부, 지속적인 멸시, 분리와 이혼, 갈등적인 가족 상황, 형제간의 경쟁과 차별, 가족간의 의사소통 단절 등이 포함된다(Rice, 1999). 그리고 부모 관련문제는 부모의 지나친 처벌과 폭력, 약물사용의 역사,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이다. 한편, Rice(1999)는 가정문제 이외에 학교관련 문제로써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문제해결 기술의 부족, 학교 부적응 문제 등과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들과의 부적절한 관계형성,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불안과 자살충동, 신체적·성적 학대, 우울, 알코올 및 약물사용 등을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출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청소년 가출을 위험행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분석한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청소년 가출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Roberts(1982)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에 따라 가출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가출의 원인과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 가출유형에 차

이가 있음을 나타내며,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첫째, 탐색형(explorers)은 모험을 위해 여행과 독립을 원하지만 부모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허락 없이 집을 떠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행선지를 메모 등의 형태로 남겨두며,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 한 대체로 자발적으로 돌아온다. 둘째, 쾌락 추구형(pleasure-seeking)은 감각적 쾌락 즉, 이성과의 데이트, 늦은 시간 거리 배회, 이벤트 참여 등을 원하지만 이를 억제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겪게 되면서 가출을 선택한다. 그들은 금지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몰래 집을 빠져 나오며, 밤늦게 집으로 들어가거나 친구의 집에 머문다. 주로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지만, 부모와의 갈등정도에 따라 가출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셋째, 조종형(manipulators)은 주로 집안의 허드렛일이나 친구선택 등에 대해 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가출을 통해 부모를 조종하려고 시도하며, 부모와의 타협 또는 수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귀가한다. 넷째, 은둔형(retreatists)은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며, 고함지르고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자주 목격하였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한 가지 이상의 학교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위급형(endangered)은 되풀이되는 신체적·성적 학대를 피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이들은 종종 음주 상태에 있는 부모나 의붓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주로 매질을 당하거나 매질의 위협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위의 가출유형에 따르면, 탐색형이나 쾌락 추구형 가출자의 경우 다른 청소년보다 감각 추구성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rnett(1996)와 Zuckerman(1979)등이 제안하고 있는 감각추구성향은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성향이지만, 가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성향이 다른 청소년집단보다 의미 있게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감각추구성향을 구성하고 있는 스틸 및 모험추구, 탈 억제, 지루함에 대한 민감성, 경험 추구 등은 특히 쾌락추구형 가출자들의 특성과 일치한다. Zuckerman(1994)에 의하면,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외향적이고, 충동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고, 비동조적이고, 불안 수준이 낮으며, 약물이나 음주행동, 범죄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 감각추구성향 또한 청소년 가출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정적인 또래 압력은 청소년 가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Voydanoff와 Donnelly(1999)는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으로 부정적인 또래압력과 방과 후 보호자 부재의 2가지 요인을 제안하였다. 또래압력은 가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건강한 가치관과 행동성향을 지닌 또래들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압력은 특히 가출을 비롯하여 성 일탈행동 등을 감소시키는 보상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행이나 일탈 성향이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또래압력의 경우 청소년 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컨대, 약물을 사용하는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 약물을 선택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Hawkins et al., 1992). Simons 등(1996)은 일탈 또래와 관련된 청소년들에서 디스트레스 비율이 높으며, 가출 또한 증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그들 또래의 행동과 압력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래

압력의 부정적인 영향은 또래의 사회화 효과 즉, 모델링, 평가에의 민감성, 친화 욕구에 의해 설명된다(Hawkins et al., 1992).

셋째, 방과 후나 방학 동안 부모 등 보호자의 부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의 각종 부정적인 자극에 취약하게 만들고, 외로움과 고립, 공포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출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 성인의 감시 및 통제를 받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심리적 기능화나 학교 적응 및 성취도가 더 높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감시 결여는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집 밖에서 성인들의 보호망 부족은 반사회적 또래압력에 쉽게 노출되거나 문제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Galambos & Maggs, 1991). 예컨대, 매주 더 많은 시간을 성인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약물남용과 더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 밖에서 성인들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과 성인 없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가출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Adams 등(1985)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은 ‘집을 떠나는 것’(runaway)과 ‘밀려 나는 것’(throwaway)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가족갈등과 소외,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집을 떠나는 경우이고, 후자는 가정을 떠나도록 자극 받거나 강요당함으로써 결국 가정에서 밀려난 형태이다. 밀려난 가출자들은 부모의 학대와 처벌, 편견과 무관심이 더 극단적이었으며, 더욱 심각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위험요인의 정도가 심할수록 가출을 선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며, 특히 은둔형과 위급형 가출의 발생 가능

성이 높다. 이들의 경우 가출 이후 귀가의 가능성이 적고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에 작용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위험성의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가출의 보호요인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은 가출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데는 적합하지만, 가출로 인한 부정적인 행동 결과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인 변인의 효과를 중재 또는 완충해 주는 요소 즉,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확인함으로써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행동의 영향 요인과 가출간의 관계를 중재 또는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 인습적인 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또래친구, 보호성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학교의 분위기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Hartos et al., 2000; Unger et al., 1998),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적극적 대처전략, 자기존중감 등이 제시되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Seiffge-Krenke, 1995). 이들 보호요인 가운데 특히 청소년 가출에 작용하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 또는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가출의 가장 강력한 보호요인이다. 부모의 권위적 양육방식은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의 부정적 결과를 완충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반응성과 자녀에게 반응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요구성으로 크게 구분된다.(Hartos et al., 2000). 요구적인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행동의 표준과 한계, 지침 등을 세워두고, 이 범위 내에서 그들의 자율성과 자기 의존성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런 양육태도의 부모는 감시(자녀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와 통제(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칙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자녀의 극단적인 위험행동을 차단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감시와 통제는 물질사용이나 일탈 행동, 위험 운전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감각추구성향, 또래의 부정적 압력)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Hartos et al., 2000). 특히 자동차 운전 에 대한 부모의 감시 및 통제는 또래 압력으로 인한 위험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Voydanoff & Donnelly, 1999).

그리고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행동과 온정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및 학교 수행과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Voydanoff & Donnelly, 1999; Menaghan et al., 1997). 이와 더불어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친구와 그 부모를 알고 있을 때,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urstenberg & Hughes, 1995). 또한 부모의 통제와 수용성은 방과 후 성인 감독의 결여와 반사회적 또래압력이 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 또는 완충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또래들의 동조 압력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방과 후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 가치 있는 행

등을 더 많이 선택한다(Voydanoff & Donnelly, 199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요구적인 태도 즉, 감시와 통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또래의 비합리적인 기준이나 부정적인 또래압력이 가출선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 또는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또래의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인습적 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또래들과의 관계는 가출의 보호요인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Voydanoff와 Donnelly(1999)는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청소년 가출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부정적 또래압력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친구를 갖는 것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역할 모형을 제공해 주며, 또래 평가 및 친화의 긍정적인 원천을 제공한다. 그런 친구들은 또한 청소년이 성인 없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다(Jessor et al., 1995). 그리고 Conger와 Elder(1994)는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특히 여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셋째, 보호성인들 역시 청소년의 극단적인 가출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부모나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의 많은 친척이나 이웃, 선생님들이 자신을 돌보아 주고 있다고 느낄 때, 이는 청소년들에게 잠정적인 감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요인이 된다. Conger와 Elder(1994)는 성인의 높은 사회적 지지가 남자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여

자 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 압력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사회 지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한 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출 위험에 대한 보호적 요인이 된다. Stevenson(1998)은 아프리카계 미국 청소년 표본 집단에서, 친족의 사회적 지지는 높은 위험의 도시환경에서 청소년의 분노 억압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Jessor 등(1995)은 성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청소년의 경우 문제행동의 개입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래규준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Whitaker와 Miller(2000)는 청소년의 섹스와 콘돔사용 시기에 대한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또래 규준과 성 행동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섹스 및 콘돔에 대한 지각된 또래 규준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모두가 성 행동과 관련이 있었지만, 또래의 규준과 성 행동간의 관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조절되었다. 즉, 섹스나 콘돔 사용에 대해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들의 또래규준에 대한 지각이 성 문제행동에 영향을 더 적게 주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청소년 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 학교와의 관계성, 학교의 질에 대한 높은 인식은 학업성취와 정신건강을 예언해 준다(Furstenberg & Hughes, 1995). 그리고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성인(교사, 부모)과의 관계를 촉진시키고,

학교의 학업적 풍토를 조성하도록 만들며, 부정적인 또래행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부정적인 또래행동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속한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다양한 스트레스 장면에서 청소년들의 가출 선택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에 속한다. Cohen과 Wills(1985), Plancherel 등(1994)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보호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모델 즉, 주효과모델(the principal effect model)과 완충효과 모델(the stress-buffering effect model)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쇄시키거나 조절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에 낮은 만족감을 보고했을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 수면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가출을 비롯한 약물, 성행동 등의 외적 문제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Davey, Eaker, & Walters, 2003; Dumont & Provost, 1999). 따라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청소년 가출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적극적 대처전략(positive coping strategy)은 개인 내적 변인으로 청소년 가출과 정신건강 등의 주요 보호요인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하면, 개인이 스트레스의 효과를 묵인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대처(coping)라고 한다. 대처전략 가운데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목표를 둔다. 정서 중심

의 대처전략은 그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유해한 상황을 단지 회피함으로써 심리적 불편함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다. Seiffge-Krenke(1995)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문제해결 대처양식은 기능적인 반면(정보나 충고를 추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임), 회피 대처양식은 역기능적(철회, 운명적인 태도, 회피)이다. 따라서 적극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행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정서 중심의 회피 전략은 가출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우울적 증상, 낮은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만족감과 열등한 사회적 적응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Chan, 1995).

여덟째, 자기 존중감(self-esteem) 역시 개인적 변인으로 가출이나 폭력, 무분별한 성행동, 성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보호요인이다. 오늘날 많은 연구들은 높은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통제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채택하는 반면, 낮은 자기 존중감을 지닌 사람들은 정서에 초점을 둔 수동적-회피 대처양식을 채택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Thoits, 1995). 이와 더불어 높은 자기 존중감은 가출 이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컨대, 우울증, 폭력이나 절도, 약물이나 알코올 등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검증되어졌다(Davey et al., 2003; Dumont & Provost, 1999). 따라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처치함으로써 이들의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 외적 보호요인으로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인습적인 또래친구, 보호성인의 존재 등을 제안하였고, 개인 내적 요인으로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적극적 대처전략, 자기 존중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개인 내적 요인이지만 실제로 학교가 조성하는 환경과 교사-학생간의 관계, 민주적인 분위기 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외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역시 개인의 지각이지만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지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외적 요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인 내적 보호요인에 속하는 것은 적극적 대처전략과 자기존중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들 보호요인들이 청소년 가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해주는지 그리고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얼마나 차단하며 이들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켜 주는지 등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언: 청소년 가출 대처방안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부모의 신체적·정서적·정서적 학대와 무관심,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물질사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Ringwalt et al., 1998; Thompson et al., 2001; Whitbeck et al., 1997). 가족 내 병리적 현상이 청소년 가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청소년 가출 예방과 사후 대처를 위해 이러한 가족 요인들에 대해 어떤 처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난감한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출이 점차 조기화되고, 상습화·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와 무

관심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거나 방치되는 생존형 가출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가출자의 귀가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청소년 가출을 무작정 차단하고 이들을 비행이나 범죄자로 낙인찍는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직업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자활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할 때이다.

최근 Pollio 등(2006)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긴급 컴퓨터의 장·단기 효과를 종단적 연구 설계에 의해 검증하였는데, 이들 연구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에게 6주간의 단기 서비스 지원만으로도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서비스만큼의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교육적 지지로 구분된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의식주 지원과 신체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 안정과 애정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직업 역량을 발달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컴퓨터를 양적으로 확대함은 물론이고 질적으로 그 기능과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장기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단기 컴퓨터를 보다 확대 설치하고, 필수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출 예방과 더불어 가출자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높은 수준

의 사회적 지지는 가출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인자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해 주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인정받고 있다(Thoits, 1995).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심의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우울 증상이 낮으며, 약물사용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Unger et als., 1998).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망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의미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달리 지각하는데, 친구나 애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가족성원들로부터의 지지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지각하고 있다(Kipke et als., 1995). 예를 들면, 친구나 애인과의 갈등은 가족 성원과의 갈등보다 더 스트레스적인 것으로 평정한다(Unger et als., 1998). 이것은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동료와의 관계를 실제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거나, 가족 성원과의 강한 애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다른 가출 청소년과 동맹을 형성하여 불량배나 매춘, 갱 집단, 무분별한 섹스, 약물 등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ipke et als., 1995). 이들 동료집단은 사회적 지지의 자원임과 동시에 사회적 규범을 결정하는 참조체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하여 건전하고 가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해 주지 못할 경우, 다른 가출자 집단과의 동맹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행동규범의 준거를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출자로 하여금 반사회적 행동과 심리적 부적응 행동을 자

극하고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공식적인 심리치료나 거주지에서의 처치 프로그램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동반자(예, Youth Companion; YC)를 활용하여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그들이 적극적 대처전략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문제 중심의 대처전략의 사용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 줄 것이며, 스트레스의 누적에 따른 우울과 약물사용 그리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들이 유용한 서비스 체제(공식적인 상담소, 심리치료센터, 청소년 보호시설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결국 그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포기하고 보다 안정된 생활환경을 선택하거나 창조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과 더불어 가정 내 성원들의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 또한 가출 예방과 더불어 가출자의 재 가출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출자의 귀가조치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 가족 역기능을 치료하고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출자의 가정은 물론이고 문제가 정이나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고 있는 청소년의 가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보호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허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행동만이 최선이 아니라 권위 있는 양육태도 즉, 권위와

통제가 작용하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해 평소 부모와 자녀간의 풍부한 대화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가출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주요 보호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의 비민주적이고 스트레스적인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또래의 부정적인 압력을 상쇄시킴으로써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또래들과의 동맹을 통해 가출이나 알코올, 성행동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켜 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더 이상 재미없고 따분한 곳이 아니라 즐겁고 미래지향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가출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 개입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이들의 사회 적응 능력과 직업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더불어 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 또는 상쇄시키는 보호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청소년의 가출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가출 이후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인습적인 또래친구, 보호성인의 존재, 사회적 지지, 적극적 대처전략, 자기존중감 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들 보호요인들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외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는 일반적인 보호요인들이 정작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출 행동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후속 연구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6).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치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6-17, 한국청소년개발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 김경준, 정익중, 김지혜, 류명화 (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지혜 (2005).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현숙 (2004). 가정환경 역경에 적응유연한 청소년의 보호요소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1), 141-161. 한국상담학회.
- 유성경·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현영 등 (2005). 대전지역 가출청소년 밀집 지역 및 건강실태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용교 (1993). 가출.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문제론. 서울: 서원.
- 임명용 (1996). 청소년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지역복지 서비스 모형. 한국사회복지학, 29.
- 조학래 (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행정논총, 31.
- 한상철 (2000). 가출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1(2), 29-53.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상철 (2001).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대처전략이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7(1), 1-21.
- 한상철 (2006).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삶의 질:

-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심리학회지, 12(1), 한국 사회문제심리학회.
- 한상철 · 이수연 (2003). 가출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한국청소년상담원.
- Adams, D. M., Overholser, J. C., & Spirito, A. (1995).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9, 43-48.
- Arnett, J. (1996). Sensation-seeking, aggressiveness, and adolescent reckless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693-702.
-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 301-320.
- Booth, R. E., Zhang, Y., & Kwiatkowski, C. F. (1999). The challenge of changing drug and sex risk behaviors of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3, 12, 1295-1306.
- Chan, D. W. (1995). Depressive symptom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24, 267-279.
- Clatts, M. C., Davis, W. R., Sotheran, J. L., & Atillasoy, A. (1998). Correlates and distribution of HIV risk behaviors among homeless youths in New York City: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policy. *Child Welfare*, 77, 2, 195-208.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nger, R. D., & Elder, G. H.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New York: Aldine.
- Davey, M., Eaker, D. G., & Walters, L. H. (2003). Resilience processes in adolescents: Personality profiles, self-worth,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4, 347-362.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86-495.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3, 343-363.
- Edelman, M. W., & Mihaly, L. (1989). Homeless families and housing crisis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
- Elder, G. H.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Social Psychology Quart.*, 57, 4-15.
- Elder, G. H. (1995). The life course paradigm. In Moen, P., Elder, G. H., & Luscher, K. (eds.), *The Eleve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 Farrow, J. A., Deisher, R. W., Brown, R., Kulig, J. W., & Kipke, M. D. (1992). Health and health needs of homeless and runaway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3.
- Feitel, B., Margetson, N., Chamas, J., & Lipman, C. (1992). Psychosocial background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of homeless and runaway youth. *Hospital Communication and*

- Psychiatry*, 43, 155-159.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Furstenberg, F. F. & Hughes, M. F. (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580-592.
- Galambos, N. L., & Maggs, J. L. (1991). Out-of-school care of young adolescents and self-reported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44-665.
- Giodano, P. C., & Cerkevich, S. A. (1993). The family and peer relations of black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77-287.
- Greeno, J. M., & Ringwalt, C. L. (1996). Youth and familial substance use's association with suicide attempts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Substance Use and Misuse*, 31, 1041-1058.
- Greeno, J. M., Ringwalt, C. L., & Iachan, R. (1997). Shelters for runaway and homeless youths: Capacity and occupancy. *Child Welfare*, 76, 4, 549-561.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 231-250.
- Hartos, J. L., Eitel, P., Haynie, D. L., & Simons-Morton, B. G. (2000). Can I take the car? Relations among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problem-driving practic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3, 352-367.
-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Irwin, C. E., Jr. (1993). Adolescent and risk taking: How are they related? In N. J. Bell & R. W. Bell (Eds.), *Adolescent risk taking*, Sage, Newbury Park, CA.
- Janus, M., McCormack, A., Burgess, A. W., & Hartman, C. (1987). *Adolescent runaway: Causes and consequences*. Lexington, MA: Lexington.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s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23-933.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09.
- Kipke, M. D., O'Conner, S., Palmer, R. F., & Unger, J. B. (1995).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tress outreach interventions targeted to street youth*.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nnual meeting, San Diego, California.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vitt, M. Z., & Selman, R. L. (1996). *The personal meaning of risk behavio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riendship and fighting in early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Associates, Publishers, New Jersey.
- Lind, M. C., & Shelden, R. G. (1992). *Girls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California: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s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3, 543-56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 & Cole.
- Menaghan, E. G., Kowaleski-Jones, L., & Mott, F. L. (1997). The intergenerational costs of parental social stresso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 72-86.
- Mirkin, M. P., Raskin, P. A., & Antognini, F. C. (1984). Parenting, protecting, preserving: Mission of the adolescent female runaway. *Family Process, 23*.
- Moore, S., & Gullone, E. (1996). Predicting adolescent risk behavior using a personalised cost-benefit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43-359.
- Neiger, B. L., & Hopkins, R. W. (1988). Adolescent suicide: Character traits of high-risk teenagers. *Adolescence, 23*, 469-475.
- Plancherel, B., Bolognini, M., & Nunez, R. (1994). L'hypothese de l'effect buffer a la preadolescence. In Bolognini, M., Plancherel, B., Nutiez, R., & Bettchart, W. (Eds.), *Preadolescence: Theorie, Recherche et Clinique*. ESF, Paris, pp.157-172.
- Pollio, D. E., Thopmson, S. J., Tobias, L., Reid, D., & Spitznagel, E. (2006). Longitudinal outcomes for youth receiving runaway/homeless shelter servi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859-866.
- Procidando, M. E., & Heller, K. (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22.
- Reifman, A., & Windle, M. (1995).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s a func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alcohol use, and social suppor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 329-354.
- Rice, F. P. (1999).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9ed.). Allyn and Bacon.
- Ringwalt, C. L., Greene, J. M., & Robertson, M. J. (1998). Familial backgrounds and risk behaviors of youth with throwaway experiences. *Journal of Adolescence, 21*, 3, 241-252.
- Roteram-Borus, M. J., Trautman, P. D., Dopkins, S. C. & Short, P. E. (1992.). Cognitive style and pleasant activities among female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554-561.
- Sarason, G., Pierce, G. R., & Sarason, B. R. (1994). General and specific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In W. R. Avison & I. H.

- Gotlib (eds.), *Stress and mental health: Contemporary issu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151-177). New York: Plenum.
- Seiffge-Krenke, I. (1995). *Stress, coping,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 Simon, T. R., Kipke, M. D., Ungel, J. B., & Montgomery, S. (1996). *Homeless youth in Hollywood: The lives left behind*.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nnual meeting. New York.
- Steinhausen, Hans-Christoph & Metzke, C. W. (2001). Risk, compensatory,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3), 259-280.
- Stevensen, H. (1998). Rasing safe villages: Cultural-ec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emotiona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4, 44-59.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 53-79.
- Thompson, S. J., Safyer, A. E., & Pollio, D. E. (2001). Examining differences and predictors of family reunification among subgroups of runaway youth using shelter services. *Social Work Research*, 25(3), 163-172.
- Tyle, K. A., & Johnson, K. A. (2006). Pathways in and out of substance use among homeless-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1(2), 133-157.
- Tyler, K. A., & Cauce, A. M. (2002). Perpetrators of early physical and sexual abuse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6, 1261-1274.
- Tyler, K. A., Whitbeck, L. B., Hoyt, D. R., & Cauce, A. M. (2004). Risk factors for sexual victimization among male and female homeless and runaway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503-520.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Johnson, C. J., Montgomery, S. B., & Iverson, E.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3, No. 2, 134-157.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Montgomery, S. B., & Johnson, C. J. (1997). Homeless youths and young adults in Los Angeles: Prevalence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 371-394.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3), 328-349.
- Weigel, D. J., Devereux, P., Leigh, G. K., Ballard-Reisch, D.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upport and stress: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2), 158-177.
- Whitaker, D. J., & Miller, K. S. (2000). Parent-adolescent discussion about sex and condoms: Impact on peer influences of sexual risk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2), 251-273.
- Whitbeck, L. B. & Hoyt, D. R. (1999). Nowhere to grow: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 and their famili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Whitbeck, L. B., Hoyt, D. R., & Ackley, K. A. (1997). Abusive family background and later victimizat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Adolescent*, 7, 375-392.
- Wingert, S., Higgitt, N., & Ristock, J. (2005). Voices from the margins: Understanding street youth in winnipeg.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4(1), 54-80.
- Yang, B., & Clum, G. A. (1996). Effects of early negative life experience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risk for suicide: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177-195.
- Yoder, K. A. (1999). Comparing suicide attempters, suicide ideators and nonsuicidal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Suicide Life-Threat Behavior*, 29(10), 25-36.
- Yoder, K. A., Hoyt, D. R., & Whitbeck, L. B. (1998). Suicidal behavior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6), 753-771.
- Young, M. H., Miller, B., Norton, M. C., & Hill, E. F. (1995).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ive behavior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 offsp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13-822.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Erlbaum.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09. 29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1. 28

Exploration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 Runaway

Sang-chul Han

Dept. of Adolescent Education & Counseling, Daegu Haany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risk and a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 runaway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Runaway of adolescents is increasing, and it is longer and more habit gradually than past. The prevalence methods of runaway is no longer effects on the decrease of adolescent runaway. Now there is to accept adolescent runaway, and has to support the difficult life conditions and the emotional distress of adolescent post-runaway. This means that must be identify and treatment the protective factors having an buffering effect as well as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on runaway. Although the worse factors related family are the highest risk factors of runaway, others factors including negative peer relation, a academic stress also a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runaway. And the protective factors mediating the negative influence of risk factors are an monitoring and controlling of parent as authoritative rearing attitude, a social support, a positive coping strategies, a self-esteem, and a conventional peer group. Protective factors prevent from runaway behavior, as well as improve a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the poor environment. The tasks of follow study are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rotective factors on the problem behavior of post-runaway and resilience of runaway adolescents based on the systematic research design.

Key words : adolescent runaway,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resilience, Social support